

책자로 만나는 전북미래학교 발자취

전북교육청, 사례집 '배움의 풍경 성장의 빛깔' 배부... 도내 초·중·고교 10개 우수학교 사례 담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5년 전북미래학교 운영 과정과 우수 성과를 담은 사례집 '배움의 풍경 성장의 빛깔'을 제작, 배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북미래학교 성과 중 전망적인 연구로 담기 어려운 질적 변화를 학교의 목소리를 통해 정리하고, 우수사례를 교육 현장에 널리 확산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작했다.

책자 제작을 위해 지난 4~7월까지 컨설팅과 주제별 네트워크 협의 등을 통해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3개교 등 총 10개의 우수학교를 선정했다.

특히 기존 보고서 형식을 탈피해 학



교별로 전문 작가를 1:1로 배정해 담당 교사의 심층 인터뷰를 통한 생생한 교육 경험을 구술하고, 독자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풀어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는 내용을 구성하고 글을 써야 하는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전문 작가의 손길을 통해 산출물의 완성도와 가독성을 높이는 새로운 시도였다.

총 300페이지 분량으로 제작된 책자에는 △전문적 학습공동체와 수업공개(군산흥남초) △도심 속 생태전환 교육(전주대정초) △에듀테크 활용 교육(전주송원초) △기초·기본 학력신

장(전주우전중) △슬로리딩 프로젝트(장계중) △학생중심 교과 융합 프로젝트 수업(전주고) 등 전북미래학교의 다채로운 변화와 성장 스토리가 담겼다.

오선화 미래교육과장은 "이번에 발간한 책자는 전북교육의 주요 정책을 선도하는 전북미래학교 교사들의 헌신과 열정, 학생들의 성장 기록이 담긴 소중한 결실"이라며 "최선을 다해 교육활동에 임하고 있는 학교들의 우수사례를 적극 알리고, 공유해 도내 모든 학교에서 함께 미래교육의 꽃을 피울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온열·한랭질환 예방 휴게시설 운영 등 추가

전북교육청, 산업안전보건 업무길라잡이 개정·보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 및 교육기관의 산업재해 예방과 교직원의 안전·보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업무길라잡이'를 개정, 소속 기관 및 각종 학교에 배포했다고 15일 밝혔다.

업무길라잡이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직종별 산업안전보건 매뉴얼 △도급·용역·위탁사업 시 안전·보건 확보 조치 △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매뉴얼 등 현장에서 알아야 할 정보가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다.

특히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반영해 온열·한랭질환 예방 휴게시설 운영 등을 추가했다.

또, 산업안전 업무담당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식과 예시 자료를 담았다.

이를 통해 학교가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안전사고,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경남 학교안전과장은 "우리 교육청은 교육현장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찾아내고 개선할 수 있는 안전 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에 개정된 길라잡이가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데 지침서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15일 오후 3시 전주비전대학교 컨벤션홀에서 2025 전북학생 저자 출간기념회 및 문학상 시상식이 열렸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도내 학생 문학적 상상력·인문학적 감수성 고취

2025 전북학생 저자 출간기념회·문학상 시상식 시·소설 등 총 55개 우수작 선정... 교육감상 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5일 오후 3시 전주비전대학교 컨벤션홀에서 2025 전북학생 저자 출간기념회 및 문학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학생들의 창작 기회를 확대하고 문학적 상상력과 인문학적 감수성을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기획됐다.

올해는 학생 책쓰기 동아리 52개 팀

이 참여해 개인 문집, 창작 소설, 그림책 등 1년간의 활동 성과인 다양한 문학 작품을 선보였다.

출간기념회와 함께 2025 전북학생 문학상 시상식도 병행됐다.

전북교육청은 문학에 재능과 관심을 가진 학생들에게 창작 기회를 제공하고, 인문학적 사고 확장 및 올바른 독서습관 정착을 위해 지난해부터

전북학생 문학상 공모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시·소설·수필·극 분야에서 총 55개의 우수 작품을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을 수여했다.

유정기 관한태원은 "이 행사가 학생들에게 글쓰기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 주고, 문학적 꿈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문학적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창작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 절차 간소화

전북교육청, '심의ON' 구축... 투명성·공정성 강화 기존 심의 환경 전자처리로 개선... ESG 실천 기여

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심의 절차가 한층 간소화되고, 투명성·공정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심의 절차를 전면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하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시스템(심의ON)'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심의ON'은 과업심의 요청부터 검토·확정·결과 통보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함으로써 심의 품질을 높이고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구축했다.

주요 기능은 △심의 요청 서류의 시스템 등록 자동화 및 제출 간소화 △서류 누락 여부 확인, 원가 선정 적정성 등 검토 프로세스의 시스템화 △위원·위원장이 외부망에서도 심의 자료 열람 및 의견 제출 가능 △심의 결과서·종합결의서 전자 생성 및 이력 관리 등이다.

특히 종이 출력물로 검토하던 기존 심의 환경을 전자 처리로 개선하면서 탄소 저감 및 ESG 실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재훈 기자

국립군산대·전북연구원, '전북학 대학 교육사업' 성료

국립군산대학교 박물관은 15일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의 지원을 받아 추진한 '전북학 대학 교육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전북학 대학 교육사업은 대학 정규 교육과목군산대·전북연구원 전북학 대학 교육사업 성료과과정 개설을 통해 이 지역의 역사·문화 교육에 대한 기반을 구축하고, 체계적인 문화유산 교육을 진행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할 인재 양성을 목표로 추진했다.

이 사업으로 개설된 교양 교과목 '전북 문화유산 탐구'는 전북특별자치도에 분포한 대표 문화유산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수업은 시대별 대표 문화유산의 주제별 이론 교육과 답사 등으로 구성된 팀티칭(team teaching) 방식으로 운영돼, 전북학의 기본 개념과 지역사 전반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군산=김만호 기자

실제 과거 심의 요청 시 최대 6~7종의 서류와 200페이지 분량의 출력물이 필요해 자료 누락·반려·재전송 등의 비효율이 반복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 심의 건수의 비정기적 제출로 인해 충분한 사전 검토가 어려워 업무 부담이 가중되기도 했다.

오선화 미래교육과장은 "이번 과업심의 온라인시스템 구축으로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디지털 기반의 효율적인 행정 체계를 구현하는 전환점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서류 출력과 반복 업무를 줄이고, 정보화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기전자재료 분야 국내외 학술상 2관왕

전북대 정창규 교수
전기전자재료학회 '논문상'
ICAE 국제학술 '최대기여상'

ICAE 국제학술대회에서도 최 대기여상(Best Contributor Award)을 수상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정 교수는 연구성과 초록 13편을 제출·등록하며 학술 교류에 가장 많이 기여한 연구자로 평가받았다.

ICAE는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가 2011년 제정해 2년에 한 번 개최하는 국제 규모의 전문 학술대회로, 올해는 약 1,700명의 연구자가 참여해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정 교수의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국가이론타 사업, 전북 RISE 사업, JBNU-KIST 산학연융합 플랫폼, BK21 사업, 에너지신산업 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 등 다양한 국가·지역·산학 협력 프로젝트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정창규 교수는 "이번 수상이 우리 대학의 연구 경쟁력을 높이고, 전기전자재료 분야 국제 네트워크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재훈 기자

HUSS 유공분야 공로 '인정'

전주대 김순정 연구교수, 교육부장관 표창

전주대학교(총장 류두현)는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단(이하 HUSS사업단) 김순정 연구교수가 2025년도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HUSS)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김순정 연구교수는 비교과 프로그램 기획·운영과 성과관리 체계 구축, 참여대학 및 대내외 협력 지원 등 사업단 실무 전반을 총괄하며 탄탄한 운영 기반을 마련해왔다. 특히 사업 1차년도에 총 31개 비교과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학생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성과지표 관리 및 보고 체계를 표준화함으로써 사업 성과의 체계적 축적과 지속가능성을 높인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김순정 연구교수는 "이번 표창은 사업단 실무진과 참여 학생들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 기반 융합인재 양성과 성과 확산을 위해 운영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대 HUSS사업단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성과관리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고, 참여 학생 지원과 협력 기반을 강화해 지역 기반 융합인재 양성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콜롬비아 혁신 창업 역량강화 착수

전북대, KOICA 프로젝트 봉사단 4기 보고타에 파견 창업전문가는 내년 2월 파견, 기술혁신 창업기반 구축

전북대학교가 KOICA(한국국제협력단) 프로젝트 봉사단을 콜롬비아에 파견하며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의 글로벌 역할을 본격화했다.

전북대는 KOICA 프로젝트 봉사단 4기 단원 14명이 최근 콜롬비아 보고타로 출국해 '보고타 국립직업훈련학교'를 실제 창업으로 연계하는 활동을 위해 현장 활동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파견된 봉사단은 향후 3년간 사업의 기반을 다지는 핵심 인력으로, △기초선조사수행 △창업 공간 구축 및 기자재 확보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기획·운영 등을 통해 SENA의 혁신창업교육 체계 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콜롬비아 지역의 SENA 재학생과 졸업생 약 500명을 대상으로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운영해 총 30개의 유망 스타트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실제 창업으로 연계하는 활동을 추진한다. 전북대는 이와 연계해 내년 2월 창업전문가를 현지에서 파견해 사업화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태권도 수업, 한국 음식 쿠킹을 레스, 서예·캘리그래피 프로그램 등

다양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해 양국 청년 간 상호 이해 증진과 우호적 파트너십 구축에도 나선다.

이번 사업은 문경연 전북대 국제개발협력원장이 사업책임자를 맡아 한국국제개발협력센터(KIIC)와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된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총 6회에 걸쳐 봉사단원을 선발·파견할 예정이다. 사업의 궁극적 목표는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에 위치한 국립직업훈련학교(SENA)의 혁신창업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혁신 기반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 지역의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데 있다.

특히 본 프로젝트는 콜롬비아 청년층의 창업 역량 강화와 고용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 KOICA 중점 협력사업으로, 전북대는 거점급대로서의 글로벌 역할을 바탕으로 지구 ESG 활동을 확장하고 있다.

한편 전북대 국제개발협력원은 2차 파견 단원을 모집했다. 이들은 1개월 간의 국내교육을 이수한 뒤 2026년 4월 말경 콜롬비아 보고타로 파견돼 4개월간 현지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원광대은재호 학생 환경보건학회 포스터발표상

원광대학교(총장 박성태) 안전보건학과 3학년 은재호 학생과 최은희 지도교수가 2025년 (사)한국환경보건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포스터발표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대학축제로 노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평가: 수동 공기 채취 및 요충 생체 모니터링 근거 기반 연구를 주제로 한 연구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다.

해당 연구는 교내에서 열린 축제 기간 동안 수동 공기채취기를 활용해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측정하고, 참여자 30명의 소변 시료를 분석해 요충 대사체 변화를 확인한 내용이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대학축제를 위한 안전보건 기반 연구로서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은재호 학생은 학부생 신분으로 대학원생들과 경쟁해 노출 및 위해성 평가 부문에서 수상하며 논문을 끝냈다. /최은희는재호 기자